

# 나주시, 로컬푸드 체험 성황

### 반남 감자농가·왕곡 청솔목장 견학 체험

###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 가족 35명 참여



나주시는 지난 23일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과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제6회 나주로컬푸드 소비자 체험 투어'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컬푸드 체험투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과 교류, 상호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로컬푸

드 출하 농가를 직접 방문, 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반남면 감자 농가와 왕곡면 청솔목장을 방문한 회원들은 감자 수확, 시식, 치즈 공장 견학, 요거트·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며, 로컬푸드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한 소비자 회원은 "이번 투어를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생겼다"면서, "특히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생산과 유통, 직매장을 거쳐 가장 신선한 오르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투어는 매 회기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먹거리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든든한 먹거리 신뢰를 구축해가겠다"고 전했다.

## 여수시 일자리박람회 내일 개최

### 흥국체육관서 57개 기업 방송인 김학도 씨 강연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흥국체육관에서 '2019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융호기계기술, 승진엔지니어링 등 57개 구인기업은 현장채용과 간접채용을 통해 33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 취·

창업 컨설팅관, 직업 체험관, 취업 지원관 등 6개관 64개 부스가 차려진다.

기업 채용관에서는 구직·구인 상담과 채용이 이뤄지는 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 후 채용관에 가면 즉석 면접을 볼 수 있다.

취업과 창업 컨설팅관도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여수산단 LG화학 인사 실무자에게 취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부터 창업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방송인 김학도 씨가 진행하는 창직 아카데미 특강도 준비돼 있다. 김학도 씨는 '청년의 도전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밖에도 미래 로봇체험,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이미지컨설팅 등을 할 수 있고, 유관기관 홍보관에서 다양한 취업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희망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열었다. 이번 박람회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성군, 내일부터 무료 환승 확대

### 보성군이 오는 27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시간을 기존 40분에서 60분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배차 간격이 느린 농어촌버스의 특성상 이번 환승시간 확대는 이용객 편의증진 및 이용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성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제공과 활성화 등을 위해 무료 환승시간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 등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은 버스를 갈아 탈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체크 후 60분 이내 환승을 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료 환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해남군-서울 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도농협력 강화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과 디지털 산업 메카 서울시 구로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남군과 구로구는 23일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 구로구청장, 이순이 해남군의회의장, 박철성 구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군·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도농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양 군·구는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협력사업 발굴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발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수산물 대표 주산지인 해남과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행복 강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매결연 협약식 후에는 구로구청 광장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현주, 정태우, 양동근, 유선씨 등 영화배우,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영화인 사랑의 김치나눔이 행사가 열렸다.

김치나눔이 행사에 쓰인 절임 배추와 양념 등은 전량 해남에서 공급됐으며, 만들어진 김치 1,500박스(5kg)는 구로구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단체 등에 전달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군인 해남과 첨단 디지털 산업의 선두주자인 구로구가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품 해남 배추로 만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마련해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는 한편 구로구민들에게 해남의 정을 전달함으로써 더욱 의미를 깊게 한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 영광군, 구도심 사거리 일방로 청꿈공방 거리로 변신

영광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19 하반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억원(도비 1억, 군비 1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전남 11개 시군이 공모하여 1, 2차 심사 과정을 거쳐 이 중 6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또한 영광군은 상반기 '내일의 두드림, 청춘공방'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청꿈공방 조성'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꿈공방 거리 조성사업은 영광읍 구도심 사거리 일방로의 빈 점포를 활성화 할 계획으로 2019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배움살이 공작소'와 전문창업보육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도와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1월 조작개편으로 신설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는 올해 정부와 전라남도 공모에서 행정안전부 4건, 고용노동부 2건, 전라남도 19건 등 총 2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4,49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청꿈공방 거리 조성으로 영광읍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영광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화순군, 7418농가에 농민수당 30만 원 지급 예정

3개월분 상품권 지급

화순군이 올해 7418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2월 지급대상 농가에 농민수당 30만 원(10월~12월 3개월분)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30만 원 상당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군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지역농협과 원활한 농민수당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다음 주 중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2018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538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상 농가의 87.5%인 8350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농

민수당 신청 농가에 대한 재검증을 시행해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일 미등록·부적합 농가, 중복신청자, 주소와 실제 경작지 부합, 산지관리법 위반, 가족전염병 위반자 등 932농가를 제외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신청 건수 대비 88.8%인 7418농가로 결정됐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농업 분야 핵심 공약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인구 감소 최소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